

# EVENT REVIEW

일본국가전략연구

## 아베 정권 하 일본의 정보통신기술 전략



2017. 01. 20

정지희(서울대 일본연구소)

- 2013년 1월 아베 총리의 IT정책 재정비 지시에 따라 3월부터 IT종합전략본부 산하에 IT 전략기초위원회를 설치, 6월 14일 아베 정권의 새로운 정보통신전략으로 202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IT활용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건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世界最先端 IT 国家創造宣言, 이하 '창조선언') 각의결정.
  -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로 알려진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성장전략 중 세 번째 화살에 해당하는 성장전략의 '핵심'으로서의 정보통신기술(IT 혹은 ICT, 이하 IT)전략.
  - 세계 각국이 IT를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일본 사회·경제의 폐색을 타파하고 국민이 희망과 자신감에 넘치는 미래를 개척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서의 IT에 대한 기대.
  - 일본의 경제 살리기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포함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도구로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IT를 활용하는 것을 선언.
- IT는 이미 1970년대에 침체된 세계 경제 속에 체제 위기에 봉착했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구원의 잠재력'을 지닌 기술로 평가(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상품이자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유효수단)되어, 침체된 경제력 복원을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지원되고 육성되기 시작.
  - 1980년대 접어들어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이 일제히 정보통신산업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설정. 기존산업 정보화, 정보기술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정보부문 산업화 양면 전략, 산업조직의 정보화와 정보기술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정보부문의 산업화(정보의 상품화) 동시 추구.
  - 아베 정권 하의 '창조선언'의 경우 장기 경제불황과 사회문제 타개,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재생 등의 현안이 IT전략 재정비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창조선언'의 기본 이념: 폐색을 타파하고 재생하는 일본, 세계최고 수준의 IT활용 사회 실현
  -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 지속으로 주요국 중 최저수준의 경제성장률에 머물고 있고 그 사이 신흥국의 급속한 성장 탓에 일본의 상대적 경제력이 저하하고 국제적 지위가 후퇴하고 있다는 위기의식 + 대량생산과 가격경쟁의 성장 모델은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 아래 산업구조 변혁 필요성
  - 세계에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인구 감소, 그에 따른 노동력 인구의 감소와 사회 보장비용의 증대,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과 대규모 자연 재해에 대한

대책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의 안정 공급과 경제성 확보, 고도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 등, 일본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과제 선진국'이라는 진단

- 위와 같은 '경제·사회 전반의 폐색'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서의 IT.

◦ IT는 모든 영역에 활용되는 다목적 도구로 혁신 프로그램을 유발하는 힘

◦ GDP의 약 70 %를 차지

◦ 생산성 향상과 여성이나 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 등 노동 투입의 양적 확대도 기대 가능

→ 경제 재생과 사회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

- '창조선언'은 2014년 6월 24일, 2015년 6월 30일, 2016년 5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개정. 2014년말부터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대비와 지방창생을 주요 과제로 설정.

- 제도적 기반과 IT전략의 선례

◦ 일본 정부는 2001년 1월에 이미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형성 기본법(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形成基本法) (平成12年法律第144号)을 시행하고, 내각에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추진전략본부(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 약칭 IT종합전략본부[IT総合戦略本部])를 설치.

◦ IT종합전략본부 설치의 목적은 "IT를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급격하고 대폭적인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에 적확하게 대응할 긴요성을 감안하여 고도 정보 통신 네트워크 사회의 형성에 관한 시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2001년부터 '5년 이내 세계 최첨단의 IT국가 달성'을 목표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인프라 정비의 가속화 등을 골자로 하는 'e-Japan 전략'이라는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 2009년에는 사회보장 및 각종 분야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국민전자사서함'의 보급과 정착을 꾀하는 등의 'i-Japan 전략 2015'도 뒤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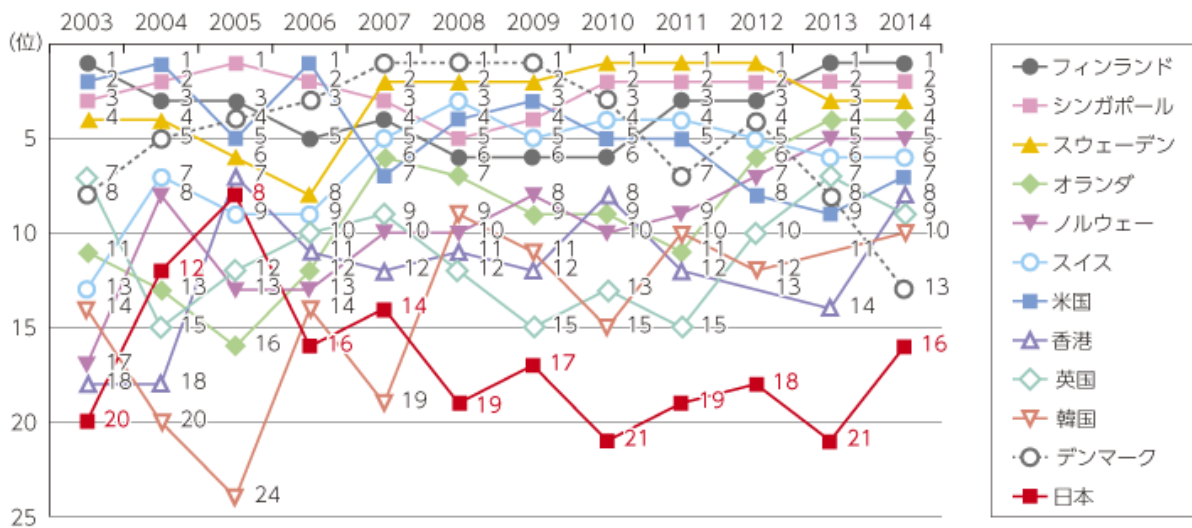
- 선행 IT전략에 대한 IT종합전략본부의 평가

◦ 2000년대에 추진되었던 IT부문 국가전략의 실효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

◦ 이상적인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력 부족이 지적됨.

- IT의 활용이 크게 진전되지 않고 그 성과를 사회에 충분히 환원 할 수 없어 많은 국민이 그 성과를 실감하지 못함.
- 특히 행정서비스나 의료, 교육 분야 등에서의 IT 활용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충분치 않음. 정부에 의한 낭비의 발생이나 편의성의 저하, 지역 및 세대 등의 정보활용의 격차와 안전성 대책 미비.
-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와 같은 통계 수치상 세계 최첨단 IT 국가로서의 지위를 잃고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도 뒤쳐지고 있는 실정.

세계경제포럼(WEF) IT 경쟁력 순위(2003~2014)



- IT종합전략본부가 분석한 선행 전략들의 실패요인

- IT 활용을 강조하면서도, IT화·IT 활용이라는 말 뿐, 이용자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조직을 초월한 업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
- 그 결과 IT의 편리함이나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함.
- 각 성(省)에 의한 개별적인 IT 투자 시책 추진으로 인한 중복 투자 사례로 대표되는 관계 부성청(府省庁)간 연계 부족.

- '창조선언'

- '창조선언'은 '실행 중시'를 기치로 내걸고 상기 기존 전략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서, 부성(府省) 횡단적인 권한을 갖는 일본정부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에 해당하는 내각정보통신정책감(内閣情報通信政策監)을 신설하고 정보통신기술 전략 추

진의 사령탑 역할을 맡아 각 부성과의 조율을 통해 정부 전체의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추진하도록 내각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政府CIO法) 개정. 법제 개정.

- 2013년 6월 4일 신설된 내각정보통신정책감(内閣情報通信政策監)으로 리코(リコージャパン) 출신의 엔도 고이치(遠藤紘一)임명.

- '창조선언'이 IT활용을 통해 이룩하려는 사회상

#### 2013년 '창조선언'

- 혁신적인 신산업·신서비스의 창출 및 전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회
- 건강하고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재해에 강한 사회
-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원 스톱으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2015년 개정,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시점을 타겟으로 명확히 설정

IT를 활용하여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으로

-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사회
- 거리·사람·일의 활성화에 의한 활력 있는 사회
- 안전·안심·풍요로움을 실감 할 수 있는 사회
- 공공 서비스를 원 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

2016년 개정, 지방창생 키워드 강화

'국가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전국으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다음 세 가지를 중점과제로 설정, '일억 활약' 등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쾌적한 국민생활 실현 목표.

- 중앙과 지방의 행정정보시스템 개혁성과 성과의 횡적 전개
- 전국 데이터 유통환경 정비
- 데이터 등을 활용한 제 문제의 해결'

- 전략의 정책적 추진과 실적

#### 2013년 '창조선언' 추진안(세부)

1. 혁신적인 신산업·신서비스의 창출 및 전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회의 실현

- (1) 오픈 데이터 빅 데이터 활용의 추진
  - (2) IT를 활용 한 일본의 농업 · 주변 산업의 고도화 · 지식 산업화와 국제 전개(Made by Japan 농업의 실현)
  - (3) 폭 넓은 분야에 걸쳐 오픈 이노베이션의 추진
  - (4) IT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의 활성화
  - (5) 차세대 방송 서비스의 제공에 의한 영상 산업 분야의 신사업 창출, 국제 경쟁력 강화
2. 건강하고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재해에 강한 사회
- (1) 적절한 지역 의료·개호 등의 제공, 건강 증진 등을 통한 건강 장수 사회의 실현
  - (2) 세계 제일 안전하고 재해에 강한 사회의 실현
  - (3) 가정이나 지역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의 실현
  - (4)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교통 사회의 실현
  - (5) 고용 형태의 다양화와 워크 라이프 밸런스(일과 생활의 조화)의 실현
3.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원 스톱으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 (1) 편리한 전자 행정 서비스 제공
  - (2) 국가·지방을 통한 행정 정보 시스템의 개혁
  - (3) 정부의 IT 거버넌스의 강화

- 2016년 시점에서 정부 정보 시스템 개혁, 마이 넘버 제도의 운용 개시,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 등 IT 활용 기반 정비 등을 주요 실적으로 자체 평가. 다만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수 치나 통계 제시되지 않음.

- 정부정보시스템 개혁 면에서는 시스템의 통폐합, 클라우드화, IT의 활용에 의한 업무 개혁 (BPR) 추진. 2012년도에 약 1450건 있었던 정보 시스템 수를 2018년까지 반감하는 것으로, 2013 년도에 약 4000억엔 있던 정보 시스템의 연간 운영 비용을 2021년도까지 30%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누구의 정보인지 모르도록 가공된 '익명 가공 정보'를 빅데이터 활용 목적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인정. 행정수속 간소화에 의한 국민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마이 넘버 도입(사회보장, 납세, 재해대책 분야).
- 2014년 유엔 전자정부 순위에서 2년 전 18위에서 6위로 상승. 세계경제포럼 IT 경쟁력 순위에서 2013년 21위→2014년 16위→2015년 10위로 상승.

2013년도 세계경제포럼(WEF) IT 경쟁력 순위(상세)

副指数	順位	スコア	項目	順位	スコア
Environment subindex	26	4.9	Politic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19	5.0
			Business and innovation environment	37	4.7
Readiness subindex	28	5.4	Infrastructure and digital content	24	5.8
			Affordability	92	4.5
			Skills	13	5.7
Usage subindex	9	5.6	Individual usage	13	5.9
			Business usage	2	6.0
			Government usage	27	5.0
Impact subindex	17	5.1	Economic impacts	8	5.4
			Social impacts	31	4.9

기업의 활용 면에서 높은 점수, 환경이나 대응력 면에서 낮은 순위. 특히 경제적 부담(회선 요금 등)에서 낮은 평가. 경제효과에 비해 사회효과 점수 낮음.

2015년도 세계경제포럼(WEF) IT 경쟁력 순위(상세)

副指数	順位	スコア	項目	順位	スコア
Environment subindex	18	5.2	Politic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8	5.5
			Business and innovation environment	35	4.9
Readiness subindex	15	6.0	Infrastructure	17	6.3
			Affordability	43	5.8
			Skills	15	5.9
Usage subindex	4	5.9	Individual usage	13	6.2
			Business usage	2	6.0
			Government usage	7	5.4
Impact subindex	11	5.4	Economic impacts	12	5.1
			Social impacts	13	5.6

- 과제와 전망

- 2013 년 이후 일부 분야에서는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세계 최첨단 IT국가의

구축을 위한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

-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활용 사회 건설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재하고 있음.
- 실제로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 IT 경쟁력 순위 상승은 IT활용도에서 정부부문이 22위에서 7위로 개선된 것, 정치·규제 환경 부문에서 8위에서 16위로 상승한 것 등에 힘입음.
- 국가별 사용자의 IT접근성, IT사용 정도와 리트러시 수준에 따라 각국의 순위를 정하는 UN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CT개발지표(IDI)에 따르면 2013년 일본 11위, 한국 1위. 2016년 일본 10위, 한국 1위.
- 총무성이 매년 발간하는 통신이용동향조사(通信利用動向調査)에는 소득, 거주지역, 젠더, 나이 등에 따른 정보격차 문제가 정보격차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3년 이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단 2016년 기준 2인 중 1인의 75세 이상 고령자 인터넷 사용(한국 8인 중 1인), 고령자 인터넷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 노령자와 장애인 위주로 정보격차 해소 전략을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기존의 IT전략 사례에 보이는 지속력·실천력 부족으로 인한 정체 극복 가능?
- 세계경제포럼(WEF) ICT 경쟁력 랭킹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21위→16위→10위로 상승. 그러나 2016년은 10위에 머물러 정체 현상을 보임.
- 저성장 시대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 가능? ICT 선진화와 국민소득 간의 긴밀한 연관관계.
- 신자유주의적 발상의 구조개혁과 고령화 사회의 복지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 사이의 모순.